

IDEAL 학회 참관기 (홍진혁)

이번에 참석한 7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telligent Data Engineering and Automated Learning (IDEAL)은 매년 열리는 데이터 마이닝 및 인공지능 관련 학회이다. 각종 데이터 분석기술과 함께, 에이전트나 생물정보학 등의 분야를 연구하는 다양한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개최가 되었으며, 특히 개최지인 스페인을 중심으로 한 유럽 각국의 연구진이 활발히 참여하였다. 올해는 스페인 Burgos의 Burgos 대학에서 9월 20일~22일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4개의 초청강연이 준비되었고, 총 32개의 구두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본인은 21일 오후에 발표할 일정이었다. 한국에서 스페인까지의 직항이 없기 때문에,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거쳐 스페인의 마드리드에 19일 저녁 23시에 도착했다. 마드리드에서 Burgos까지 약 3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마드리드의 한국인 민박집에서 1박을 하고, 다음날(20일) 오전에 고속버스를 타고 학회지로 출발했다. 우연히 한국인 민박집에서 같은 학회를 참석하는 학생 두 명을 만나서 동행했다. Burgos에 오후 1시 30분에 도착했는데, 2시에 Xin Yao의 초청강연을 듣기 위해 바로 Burgos 대학으로 갔는데, 이곳 사람들이 보통 영어를 잘 사용하지 못해 택시 기사와 어렵게 손짓발짓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했다.

2시 초청강연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오지 않았고 도우미에게 물어보니 “다들 식사를 갖고 아직 안 왔다. 이것이 스페인이다.”라는 스페인 국민성을 살짝 엿볼 수 있는 말을 해주었다. 이곳 사람들은 삶이 여유로워서 혹시 약속이 늦어지더라도 그게 개의치 않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한다. 2시 30분쯤이 되어서야 사람들이 모였고, 초청강연이 진행되었다. Xin Yao는 교수님과 상당한 교분이 있는 연구자로, 현재 영국 Birmingham 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이고, 본 연구실과도 상당히 유사한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초청강연의 내용은 진화 신경망을 위한 앙상블 기술로서 negative correlation을 이용하여 분류기 집합을 구성하고 결합하는 방법을 소개하였다. 초청강연이 끝난 뒤, 인사도 할 겸 앙상블에 관련된 몇몇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안부를 주고받았다.



발표는 4개의 세션에서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20일 오후에는 진화연산 세션에 참석하여 발표를 경청하였다. 그 중에서 “On the structural robustness of evolutionary models of cooperation”은 본 연구실에서 과거에 진행하였던 IPD 게임을 다루는 것으로, IPD 게임에서의 전략선택을 확률적 모델로 가져가 진화기술을 이용하여 전략을 생성하는 기술을 소개하였다. 특히 실험결과를 3차원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Genetic algorithms for estimating longest path from inherently fuzzy data acquired with GPC”에서는 GPS를 이용하여 수집된 위치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가장 긴 경로를 측정하는데 진화 알고리즘을 적용한 내용을 다루었다. GPS에서 수집된 위치정보를 fuzzy 값의 형태로 변환하여 사용하는 것은 유용해 보였다.

이렇게 세션이 끝나고 숙소를 찾아갔는데, 다행히 학회에서 배정한 숙소와 그리 멀지 않은 곳이어서 학회에서 제공하는 차편을 이용해 이동할 수 있었다. 숙소는 시내 중심에 위치한 좀 오래된 여관급이었지만, 깔끔하고 프론트에 계시는 아저씨가 매우 상냥해 맘에 들었다. 숙소에 돌아와서 여정을 잠시 풀고,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저녁은 호프에서 햄버거를 먹고 첫날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21일은 Nigel Allinson 교수의 생체인식에 관한 초청강연으로 시작하였다.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생체인식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와 함께, 범죄 수사 등 offline의 생체인식 기술에 대해 많이 다루었다. 초청강연이 끝나고 휴식 시간에는 아침에 버스에서 만난 학생과 이야기를 좀 나누었고, 오전에는 classification and classifiers 세션에 참석하여 발표를 들었다. kNN을 개량한 기술이나 연관성을 이용한 리샘플링 등에 대한 소개가 있었으며, OVA 등 다중 부류 분류 시 발생하는 샘플 수의 불균형 등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어 보였다. 오후 세션에서는 본인도 “two-stage user mobility modeling for intention prediction for location-based services”란 제목으로 발표를 하였고, 발표 후에도 몇몇 연구자들과 합

께 디스커션을 할 수 있었다. 몇몇 한국 연구자들의 발표도 참석할 수가 있었으며, 발표 후에도 이런저런 이야기들로 친분을 가질 수 있었다.

21일 저녁에는 학회 뱅켓이 시내 유명 음식점에서 있었으며, 2시간 정도가 남아있어 한국 분들과 시내구경을 좀 하고 뱅켓에 참석하였다. 뱅켓도 마찬가지로 정시에 도착을 해 기다리는데, 사람들이 거의 오지 않았고 30분 정도 지나서야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기다리는 동안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온 학생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스페인의 문화나 다양한 소개를 들을 수 있었다. 뱅켓에 나온 음식은 고급이라고는 하는데, 입맛에 맞지 않아서 그리 맛있게 먹지는 못했고, 같은 테이블에 앉은 일본인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즐거움으로 대신하였다. 몸이 피곤하여 11시쯤에 숙소로 돌아가 취침했는데, 다음날 이야기를 들어보니 12시 30분에서야 끝이 났고 몇몇 사람들은 새벽 3~4시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한다.

22일에는 동행했던 한국 분들의 발표가 있어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였고, 그 외 특별한 일은 없었다. 학회 일정이 모두 끝나고는 한국 일행들과 하루를 더 보내고 다음날 아침 일찍 마드리드로 출발해 약 1.5일 정도의 관광을 하였다. 안타깝게도 날씨가 너무 추워 체하는 바람에 많은 곳을 다니지는 못했고, 마드리드 외곽의 톨레도라는 도시 구경과, 시내 구경으로 관광을 마쳤다. 혹, 유럽 여행을 가는 분들은 소개서에 나와있는 날씨와 많이 틀릴 수 있으니 다양한 옷을 가지고 가는 것이 필수라 느꼈고, 소매치기 등이 많아서 항상 주의할 필요가 있었다.

